은둔형 외톨이 스님이 소년원 교정위원으로

日 지센지 20대 수행자 묘쇼 스님
어두웠던 자신 과거 경험 거울삼아
면담 등 소년범죄자 사회복귀 힘써
"어려울 때 믿어주는 존재 될 것"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최연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카타오카 묘쇼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교 거부, 끝내 은둔형 외톨이까지 경험했던 한 비구니 스님이 소년원 교정위원으로 나섰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거울삼아 소년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에 힘을 더하겠다고 다짐하는 스님. 지난 7월 14일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카타오카 묘쇼 스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약 500여 년 전 카가와(香川)현에 건립된 정토진종 사찰 지센지(慈泉寺). 현재 지센지에서 원주 소임을 맡고 있는 카타오카 묘쇼 스님은 아직 20대의 젊은 수행자다. 스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 단체행동에 위화감을 느꼈다"면서 "5학년부터는 등교를 거부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학교에 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결국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을 시작했다"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전했다. 스님은 "주변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응원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괴로웠다"면서 "당시 지센지의 주지이자 할아버지였던 와마로 스님이 '기껏 학교를 안 가는데, 놀지 않으면 아깝다'며 힘들어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 주면서 서서히 일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스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교토의 미술대학으로 진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할아버지 같은 스님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 곧 미술대학을 중퇴하고 불교계 학교로 진학해 출가하게 됐다.

5년 전부터 종단에서 공식 포교사 자격을 받아 SNS와 다양한 행사에서 불교를 전하던 스님은 "젊은 층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교회사(教誨師)'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다. 교회사란 종교계 교정위원으로 일본 전국에 약 1800명이 있으며 평균 연령대는 60대이다. 스님은 "끝내 비행의 길에 들어선 젊은이들과, 학창시절 등교거부로 힘들었던 나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며 교회사에 자원한 계기를 전했다.

묘쇼 스님은 지난 4월, 카가와현 유일의 여자 소년원인 마루가메 소녀의 집에서 '교회사(教誨師)'로 위촉됐다. 소년원 측은 "현재 전국에서 여성 교회사는 단 70명 정도로, 올해 28세인 묘쇼 스님은 현재 일본 최연소 교회사"라고 밝혔다.

6월부터 월 1회 정도 소년원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묘쇼 스님은 특기인 일러스트를 살려, 소녀가 일상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하며 성장해 가는 만화를 제작해 수감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스님이 전하는 행복과 일상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스님은 "아마도 내가 다른 교회사들보다는 가까운 나이대라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웃어 보였다. 현재 스님은 수감 청소년의 희망이 있을 시 개별면담 등을 통해 교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묘쇼 스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가 있는 것은 큰 지지가 된다. 나 역시 나를 믿어준 할아버지에게 구해진 것처럼, 나 역시 사람을 구해주는 이가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우란분절 행사 봉행

화교 공동체 · 종교계 함께 진행
불교천도재 · 도교 천혼제 실시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우란분절에 재를 모시는 모습. 사진출처=더스타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의 큰 명절인 우란분절. 화교를 중심으로 중국 대승불교가 널리 퍼진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란분절 행사가 봉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말레이시아의 '더 스타'는 음력달력에 맞춰 봉행될 예정인 행사들에 대해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기념공원인 완푸산장 묘원은 "오는 음력 7월을 맞이해 약 한 달간 선조와 고인들에 효를 다하고, 산 자들의 공덕을 위한 우란분절 행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완푸산장 CEO 토미 치엥은 "우란분절은 흔히 영어로 '아귀를 위한 축제(Hungry Ghost Festival)'라고 한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재를 베풀어 아귀로 있을지 모르는 무주고혼의 영가들과 선조들에게 먹을 것과 가르침을 보시하기 때문"이라며 화교가 아닌 말레이시아 사회에 우란분절을 소개했다.

그는 "이 법요는 죽은 영가들 뿐만 아니라, 재를 베풀고 공양을 올리는 산 자들에게도 공덕을 쌓는 기회가 되며, 이것은 모두가 끝내 성불로 가기 위한 방편이며, 화교 공동체의 문화적 결속과 전승에도 중요한 행사"라며 행사와 법요의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우란분절 법요는 불교식의 천도재뿐만 아니라, 도교식의 천혼제도 함께 봉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완푸산장 측은 이번 우란분절 법요에 대해 "불가와 도가가 함께 봉행하는 법요는 영가에게는 더 나은 생으로 향하는 길과 공덕을 베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1001불 모신 사찰, 건축법 위반으로 존폐 위기

美 법원 측 건축법 위반 판결에
"종교·인종 차별·인권 유린" 반발


위법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캘리포니아 1001불전. 사진출처=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난 7월 1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및 샌프란시스코 지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여러 매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캘리포니아 한 사찰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법건축물 철거 판결 소식을 전했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1,001불전이 미허가 건축물 및 건축법 위반에 따라 위법 건축물 철거 판결을 내렸다. 관련 공무원은 "2018년에 설립자 '마오란 리씨'에게 '적절한 구조 및 기초 시스템 없이 건설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부분적 또는 완전한 붕괴 위험이 있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2021년 해당 사원을 개인적으로 종교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1001불전 사원 및 일부 건물이 화재 위험이 있으며 오폐수 처리 시설 미흡, 환기, 조명 위생시설 및 단열재가 불충분해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1001불전은 설립자 먀오란 리 씨가 2010년 12만 평의 부동산을 매입, 1001불전 및 여러 건축불을 개보수하면서 시작됐다. 사원은 오직 개인 예불을 위해 사용됐지만 시의 요구 사항에 맞춰 개보수를 진행했다. 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않았다. 2019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참석한 회의에서는 담당 부국장이 "부처님을 방패 삼았다" "부처님께선 이 건축물을 허가하셨는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고소하기도 했다. 먀오란 리 씨는 "현재 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인 종교 시설의 많은 부분을 철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종교, 성별 및 인종적 차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씨의 변호사 알리토는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하며 일부 백인 이웃이 미허가 건축물을 유지하는데 반해 의뢰인의 사유 재산을 다루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과거 논란이 된 건물 외 리씨의 주거지를 수색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의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수년간 지속된 분쟁에서 프리몬트 시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인권 유린 및 감정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리씨의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프리몬트 시의 건축법 차별 적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이웃 중 리씨의 건축 규모와 비슷한 것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적법한 건물이라면 '종교를 행사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 알리토는 "법원이 리씨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 전했다.

한편, 최근 미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편 배달부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건에 배달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며 동성커플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기후변화로 실크로드 불교 유적 훼손 가속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연구 결과 발표


기후변화로 인해 훼손된 진타사 동굴 벽화. 박리 되어 벽화 기저층이 노출되었다. 사진출처=그린피스

중국 북서부의 기후 변화로 고대 실크로드 동굴 벽화와 조각상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16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고대 실크로드의 불교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리피스'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간쑤성은 실크로드의 통로로 해발고도가 높고 내륙에 위치해 기후는 춥고 건조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사막지역의 강우량이 증가해 습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갑작스러운 홍수로 동굴이 침수되어 수 세기 동안 조성된 불교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간쑤성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동시에 총 강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여름 강우량은 증가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둔황 석굴(막고굴)도 훼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리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빈번하고 집중적인 폭우와 홍수로 둔황 석굴의 습도가 높아져 4세기 조성된 동굴 벽화 염료의 결정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리 및 염분 축적을 촉진하여 벽화가 빠른 속도로 벗겨지고 있다. 둔황 석굴의 85번 동굴은 이미 광범위한 박리 피해를 입었다.

둔황 석굴에서 약 500km 떨어진 진타 사원 동굴은 작년 8월에 내린 비로 대기 습도가 93%에 달해 불교 유적의 분해, 부패 및 침식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동굴 중간 기둥에 0.3~0.5cm의 균열이 생겨 물이 스며들고 있다. 누수로 인해 천장 벽화에 금이 갔으며 동굴 벽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며 "특히 둔황 석굴에서 이 치명적인 훼손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연구진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周易禪解
우익지욱 선사
『주역선해』의 현대적 강설!
우익지욱, 『주역선해』를 통해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다
불교로 풀어보는 주역철학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